



계란 및 육계 유통규격조사 연구

— 본회, 축산진흥기금 보조받아 —

한국가금학회 협조언어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대

본회는 경제발전에 따라 양질의 양계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국제행사가 자주 개최되어 많은 외국인이 내한할 것에 대비, 거래되는 양계산물이 품질향상과 규격화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계란과 육계의 유통규격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본조사연구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우리나라 시장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등급규정을 설정하는 전국의 통일된 양계산물 규격제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데, 현재 계속적인 양계산물의 물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계란의 단순무게 거래를 무거운 물론 내부품질, 영양가 기준으로 등급별 거래할 수 있도록, 육계 체중단계에 따른 거래를 체중별 도체등급에 의한 도체율을 고려한 거래 또는 부위별 거래등급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본회는 이를 위해 농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축협외 축산진흥기금에서 1천 2백여만원을 지원 받아 금년 8월 부터 내년 5월까지 조사연구 사업을 할 예정인데 연구책임은 한국가금학회(회장오봉국)에서 맡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연구는 설문조사, 현지조사, 문헌조사 등을 병합하여 계란, 육계 등을 직접 공시

해 조사및 연구를 하며 중점 내용은 △계란및 육계의 거래제도및 유통단계별 조사 △외국의 등급제도및유통규격조사△계란의 난중별 생산비율및 육계종류별 출하체중 분포 조사 △계란의 크기별 영양가 조사 △육계의 종류별 체중별 도체율및 부위별 도체조사연구가 행해질 예정이다.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거래등급제정 및 등급별 적정가격 비율 규명과 유통능률 향상,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이다.

양계산물가격 폭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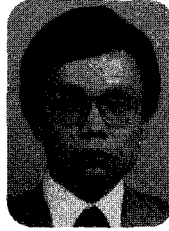
— 농수산부, 자제 촉구 서한 발송 —

농수산부는 본회가 조사한 양계산업 기반조사 실적에 따라 급작스런 병아리 출하수의 감소를 예상해 9월 이후 닭고기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석을 전후로한 9월중 닭고기가격의 급상승을 우려, 관측강화와 부화조절업무지도를 강화해 줄것을 각 양축가에 당부했다.

본회가 접수한 공문에 의하면 계란생산량도 9~10월 성수기에 생산부족이 예상되는 바 수요증가와 물량부족에 따른 가격폭등 현상

이 없도록 채란양계 농가에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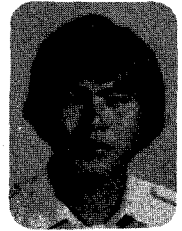
본회는 이에 따라 각 부회장, 채란농가, 육계농가의 부화현황, 사육·출하상황, 계란생산 실적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분석해 시세 전망, 정확한 정보를 각 양축농가, 제우회 등에 알려주고 있다.



(이 건표씨)



(심 정규씨)



(전 태홍씨)

닭고기 소비홍보 건의

—85년도에 반영키로—

본회는 사료효율이 좋은 양계산물이 많이 소비되도록 유도되어야 함이 마땅한 데도 최근 관계기관의 홍보가 돼지고기 소비 일변도로 홍보되고 있어 양계산업 및 양계농가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양계산물 소비홍보도 함께 실시하여 줄것을 7월 31일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로부터 본회 건의사항을 축협에 이첩, 육류소비구조개선 홍보사업에 반영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

한편 축산중앙회에서는 육류소비구조개선 TV홍보는 쇠고기 위주의 국민 육류소비 성향에서 돼지고기 및 닭고기로 개선코자 시작하였으나 83년 9월 30일 관계관회의 결과 '84년도 TV홍보는 7월 1일~31일까지 1개월간으로 완료된바, 85년도에는 본회(양계협회)의 건의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



(나 희성씨)



(강 현구씨)



(정 성식씨)

鷄의 각 농장과 관련 사업장을 교대로 들면서 각종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전업화,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기계화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현실 여건으로 보아, 이번 연수생의 파견으로 그들이 돌아와 국내 양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볼때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회에서는 이번 연수생 파견성파에 따라 연차적으로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생은 △사육관리(영양) △자가 배합기술(설계) △계분발효 퇴비제조 △집란(GP

양계기술연수생 출국

—일본 清明養鷄 초청—

본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일본의 農事組合法人 清明養鷄의 초청으로 양계기술 연수생 6명을 파견했다.

일본의 대단위 채란양계장의 사육 기술습득과 사양관리 실습, 집란(G.P 시설)센터, 계란 가공, 계분의 자원활용 등 기술습득을 위해 파견된 이번 양계기술연수생은 1년동안 清明養



△ 출국전 김포공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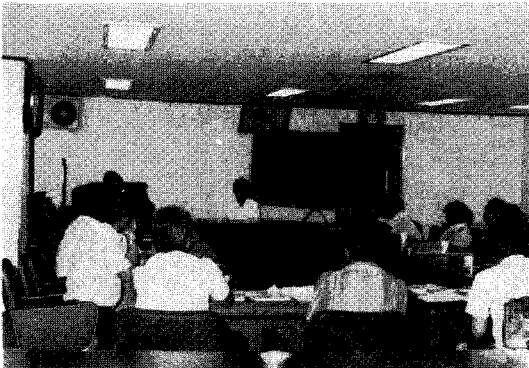
센타) 시설 △계란가공 △계사(구조)△양계경영(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왕복여비, 체재비 일체는 초청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양계기술연수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소	연령
이진표(서울대졸)	경기도 김포군	29세
심정규(연암추천졸)	경기도 평택군	26
전태홍(대전실전졸)	충북 영동군	24
나희성(대전실전졸)	대전시	25
강현구(경남 함양고졸)	부산시	26
정성식(한광중졸)	충남 천원군	28

8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계란가공산업에 대한 간담회도 가져 —



△ 8월 채란분과위원회

8월 채란분과위원회가 8월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촉진 세미나, 계란소비 홍보, 초생추 감별사 시험등의 협회주요업무보고 후 본회의에서는 산란계 초생추출하 분석, 계란 및 닭고기 소비량 추정 등 자료 검토가 있었다.

채란분과 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했던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채란 양계인들이 난가고시에 대한 의견을 교환, 현재의 난가고시가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어 계란 유통상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며, 격론을 벌인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한편 계란소비량은 '오양맛살' 등 수산물과 계란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생산량과도 관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가진 계란가공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서울 계란가공(주) 최광순 부사장의 동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 부사장은 계란처리시설, 공정, 시설규모 등을 설명한후 난분시 설과 GP센타 설치 문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생산자의 노력이 상응하는 수요처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나 동사의 꾸준한 홍보로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제과·제빵업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질문에 대해 최 부사장은 대부분 난가공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마요네즈업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계산업 기반 조사위원회의 개최

— 8월14일, 31일 본회의회의실에서 —

전국 초생추 출하량과 양계산물의 생산 동향을 관측, 자율적 생산조절을 유도 함으로써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8월중 양계산업기반 조사위원 연석회의를 지난 14일과 31일 두차례 가졌다.

각 지역별 담당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7월 전국 산란계 초생추 출하수는 1,735,443수(전월대비 20% 증가), 육용계 초생추 출하수수는 11,514,596수(전월대비 13% 감소)이고, 8월에는 산란계 초생추 출하수수 1,838,490(전월대비 6% 증가), 육용계 초생추 출하수수는 11,263,571(전월대비 2%감소) 수로 추정했다.



9월중 육계가격 전망은 추석까지는 강세를 보이면서 그 이후 평년의 수준으로 돌아올 전망이고, 계란 가격은 9월내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초생추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육계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양축가들이 국산 보리를 배합사료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배합 사료의 질저하, 가격의 상승 우려 등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양축 농가에서는 최근 축산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옥수수 뿐 아니라 값비싼 국산 보리를 유독 축산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8월 육계분과 위원회 개최

— 8월27일 본회의회의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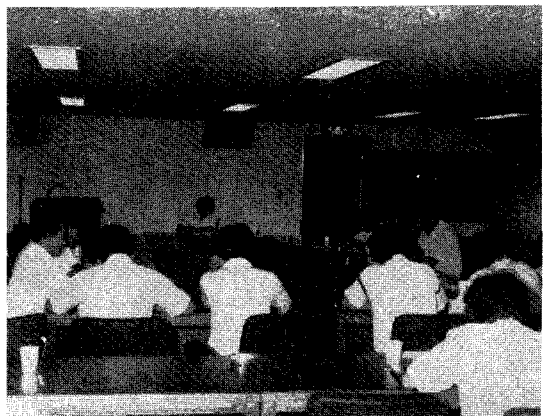
지난 8월 27일 오후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본회 육계분과 위원과 각 지역의 육계 생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육계분과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환인옥전무는 협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브로일러 수매비축실적, 브로일러 계열화 추진 세미나, 닭고기 안정화대책, 양계산물의 신문·잡지 홍보내용 등을 설명했다.

각 지역별 현황 검토에서는 전지역의 육계가

격은 거의 1,250~1,300원의 강세를 보이면서도 물량은 부족상태이고 입추 현황도 생산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9월 추석까지 강세를 예측, 그 이후 하락할 전망이며, 대군업자들의 입추현상으로 초생추 가격은 약간 상승하는 경향으로 봤다.

토의 내용은 계속해서 닭고기 가격이 1,300원대를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물가정책당국에서 수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생산자들도 너무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을 버리고 적기에 출하를 하므로써 육계가격 안정에 적극 참여 하기로 했으며, 본 육계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본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 세미나를 협조 요청하면 본회에서 가능한한 적극 추진해 줄것을 약속했다.



△ 8월 육계분과위원회 회의 광경

검정위원회 개최

지난 8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2차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 검정소 이전 사업추진 사항 보고와 향후 검정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가 있었다.

양계농가 집중호우 피해

— 양계산물가 강세예상 —

적기출하로 가격안정 협조해야

지난 9월초 중부·강원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양계농가가 피해를 봤다.

본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두천시 하봉암동 하봉암농장의 산란계 5천수가 빗물에 떠내려 갔는가 하면 경기도 남양주군 상수 1리 이상호씨의 농장이 침수되어 2만여수가 폐사했으며, 이밖에도 의정부 지역과 파주, 경기도 용인 등지의 브로일러농장이 침수돼 사육중인 닭이 폐사하고 계사가 파손되었다.

이밖에도 냇가의 범람으로 각 지방도로가 침수되어 오지의 양계장에 사료공급이 중단되어 닭을 굶겨 폐사 또는 영양실조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

물가당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소비확대로 닭고기, 계란가격이 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피해로 추석후에도 당분간 가격의 급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양축농가는 물가안정과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기 출하조절에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닭고기 가정소비 규격 작아져

— 생체 1.5~1.7kg 소비많아 —

닭고기 소비자 규격이 작아지고 있다. 닭고기 판매점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닭고기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정소비의 경우 생체기준 1.5kg~1.7kg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 구성원의 감소 뿐만 아니라 닭고기 구입시 가격의 마리당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회가 조사한 생체와 도계품의 가격 비교에

의하면 생체kg당 1,000원 일때 도계품 도매가격은 kg당 1,510원이며, 9월 4일 현재와 같이 생체 kg당 1,300원일 경우는 도계품 도매가격(도계장출하가격)은 1,950원이 되어 마리당(도계품 1.3kg) 2,600원(소매가 약 3,000원)정도가 되니 주부들이 구입하는데 부담이 되어 작은 닭을 찾게 되는 것이다.

본회가 조사한 닭고기 가격 조건표는 별표와 같다.

닭고기 가격 조건표 (단위: 원/kg)

생체농장도매가격	도계품 도매가격	비 고
800 원/kg	1,230 원/	(지 육 율 75% 운송감량 3%)
900	1,370	
1,000	1,510	
1,040*	1,570	
1,100	1,660	
1,200	1,800	
1,300	1,950	

* 생산비

(참고) kg 당 도계비 55원, 운송비 10원, 수집상 마진율 5%

본회 황전무 물가당국 방문

— 수입방지 위해 양계인 입장설명 —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그동안 생산비를 밀돌던 양계산물가격이 상승하자 물가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급 수입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본회 황전무는 8월말부터 십여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 및 농수산부 물가담당관을 방문해 양계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당관을 설득하였다.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생필품과 농산물가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바 양축농가는 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산물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